

By, James Purdie Copyright 2005

#### Book's Purpose:

This little story and book together make up for me the most significant healing vision in my life. But at its moment of conception I also realized that it was aimed at the whole of humanity, especially those suffering the most.

"...as I looked up in the sky and felt the far reaching breath of something much greater than I."

## -The Moment of Creation

책을 쓴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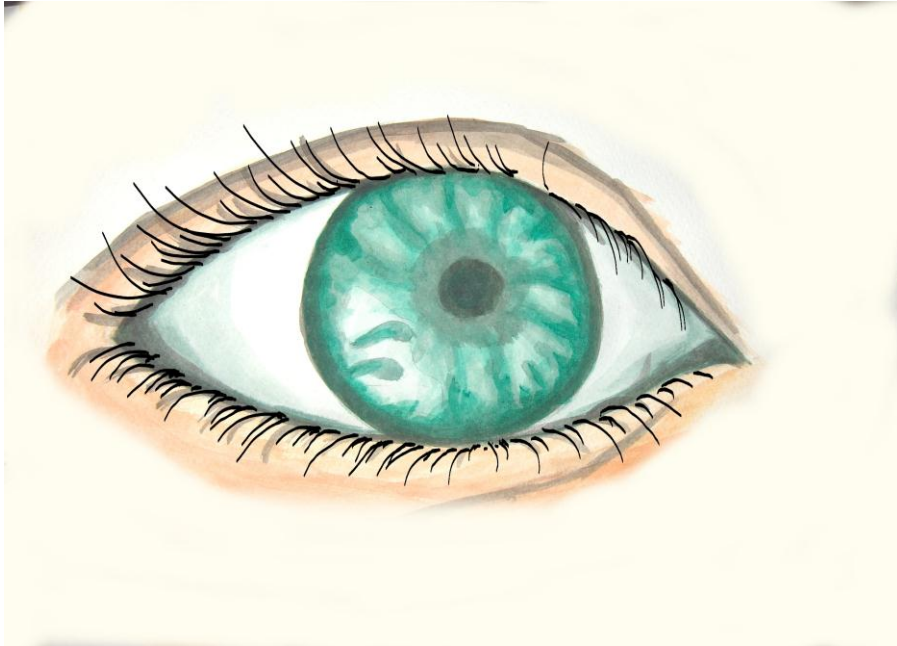
이 스토리와 책은 내게 있어 인생의 험난했던 과정을 치유할 만한 아주 소중한 상상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도 이글은 특히 삶에 고통을 받고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쓰여졌다는 것 또한 밝혀두는 바이다.

하늘을 올려다 볼때면 나보다 훨씬 큰 무언가가 멀리서 숨쉬고 있는것을 느낄 수있었다.

창조의 순간

Preface:



## The Human Eye

What is the eye? Obviously it is the part of the body we use for seeing the world. But also, the eye is the greatest symbol for the way we see, perceive and understand the world. Do we all see the same? It's a good question.

Wise people for thousands of years have said that the “eyes are the  
사람의 눈

눈이란 무엇인가? 분명한것은 우리가 보기위해 사용하는 우리몸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세상을 보고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숭고한 상징이기도 하다. 우리 모두는 제각각 같은 모습으로 같은 생각으로 보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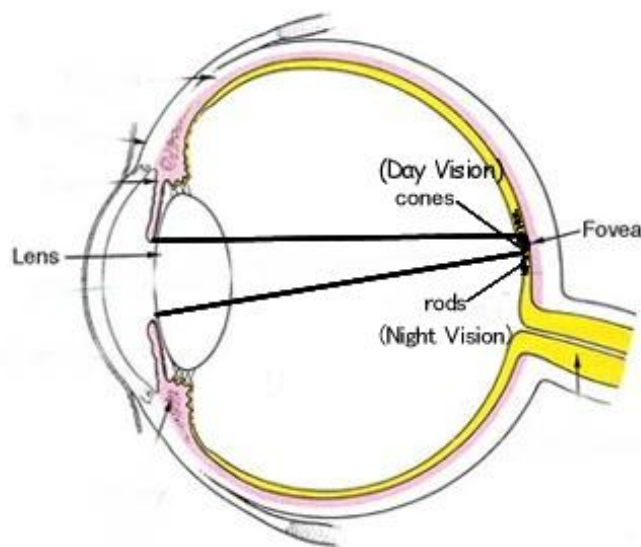
매우 의미있는 질문이다. 수천년 동안 현자들은 "눈이란 영혼의 창이다" 라고 역설해왔다.

windows of the soul.” It's a fascinating idea. Personally, I say that every human being has a story to tell, a soul story. So perhaps if we care enough and look deeply into someone's eyes we can actually see this story.

참으로 흥미있는 생각이 아닐 수 없다. 개인적인 내 생각으로 감히 말하자면 '

모든 인간은 세상에 알리고 싶은 개개인의 영혼이 깃든 이야기가 있을거라고; 그래서 아마도 누군가의 눈을 좀더 깊이 들여다보고 깊은 속내를 알게 된다면 이 이야기가 주는 의미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Inside the Eye: (two kinds of vision)



Surprisingly, if we really do look inside the eye, on the retina, we can find that there are, in fact, two kinds of light sensors: (the cones, the rods), which provide us with two kinds of sight: day vision and night vision. Several million little cones are concentrated together on one little spot in the center of the retina called the “fovea”, and they themselves are surrounded by the rods, like an island in the center of the ocean.

놀랍게도 눈 내면을 들여다 보게 되면 망막위로 두종류의 빛 센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감광 세포와 간상체) 이들은 두개의 시야로 나누어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는데 하나는 낮에 볼 수 있는 밝은 빛의 시야와 또 하나는 밤에 어두운 부분을 볼때 쓰이는 시야로 나뉜다. 수만개의 작은 세포는 망막뒤에 붙어있는 작은점 \_ "포비아" 라 불리는\_ 에 집중적으로 모여있다. 이 세포 자체는 마치 망망대해 한가운데 우뚝 서있는 하나의 섬과 같은 모양을 띄고 있으며 간상체가 그 주위를 에워싸고 있다.

Brief Scientific Facts about the Cones and the Rods:

Cones: (day vision)

- Cones give “normal vision”
- Give very clear, sharp images, (like 1000 mega pixel camera)
- Color images
- Central vision
- Focused image
  - The Cones are concentrated in little dot in the centre of the eye called the “fovea.”
  - This “fovea”, (cone-concentration) looks like a little “island”.

\*감광세포와 간상체에 대한 의학적 이론

감광세포( 낮 시야)

- 일반 시야로 볼 수있도록 한다.
- 매우 분명하고 예리한 이미지를 볼 수있도록 한다( 카메라의 1000 메가 화소만큼 아주 선명한 이미지)
- 색깔 이미지
- 중앙 시야 관장
- 명확한 이미지 상
- "포비아"라 불리는 눈 중앙에 위치한 작은 점에 집중되었음.
- "포비아"는 하나의 섬고 같은 존재.

Rods: (night vision)

- for seeing in night, in dark places
- not sharp images, not clear
- not accurate
- rods are 1000 times more sensitive to light
- the rods surround “fovea” like an ocean

간상체

- 어두운 곳 또는 밤에 볼 수 있는 시야
- 흐릿하고 둔탁한 이미지 상
- 부정확함
- 감광세포보다 천배이상 빛에 예민한 반응을 보임.
- 간상체는 바다가 섬을 둘러싸고 있는것처럼 "포비아"를 에워싸고 있음.

There are many fascinating coincidences inside the eye, especially if we are to look at this inner-eye in a symbolic manner. Surprisingly the inner structure of eye actually corresponds with what many philosophers and psychologists already believe about the psyche. In particular that we all possess both “rational” and “irrational” thought processes. So in other words, not only do we possess two actual ways of seeing but also we have two basically different ways of thinking. An example of a rational thought process would be our laser like precision ability to think logically with Science. And indeed logic, like a laser, is a great tool of the psyche. But it's not the only one. On the other hand, an irrational process, obviously, is that which isn't “rational.”

For example, a sudden creative vision looming out from apparently nowhere, much like the way this book idea came to me, Eureka! This way of looking at the mind is very rich indeed. Jungian Psychologists, too, have for many years considered our “ego” to be like an island surrounded by the “unconscious”/ocean. I would like to invite you for the moment to suspend your existing biases for the moment and follow through with this idea to see where it leads. The symbols and coincidences I've found here are for me, are seemingly infinite, but I think that this is the true nature of art. Good art is like a captivating, mesmerizing golden fire with which we can really discover some truly beautiful, wondrous thoughts and ideas. With these interesting thoughts in mind I invite you to read this story. Afterwards, I'll share a few more symbols and associations with this Cones/Rational/Island vs Rods/Irrational/Unconscious model of the human psych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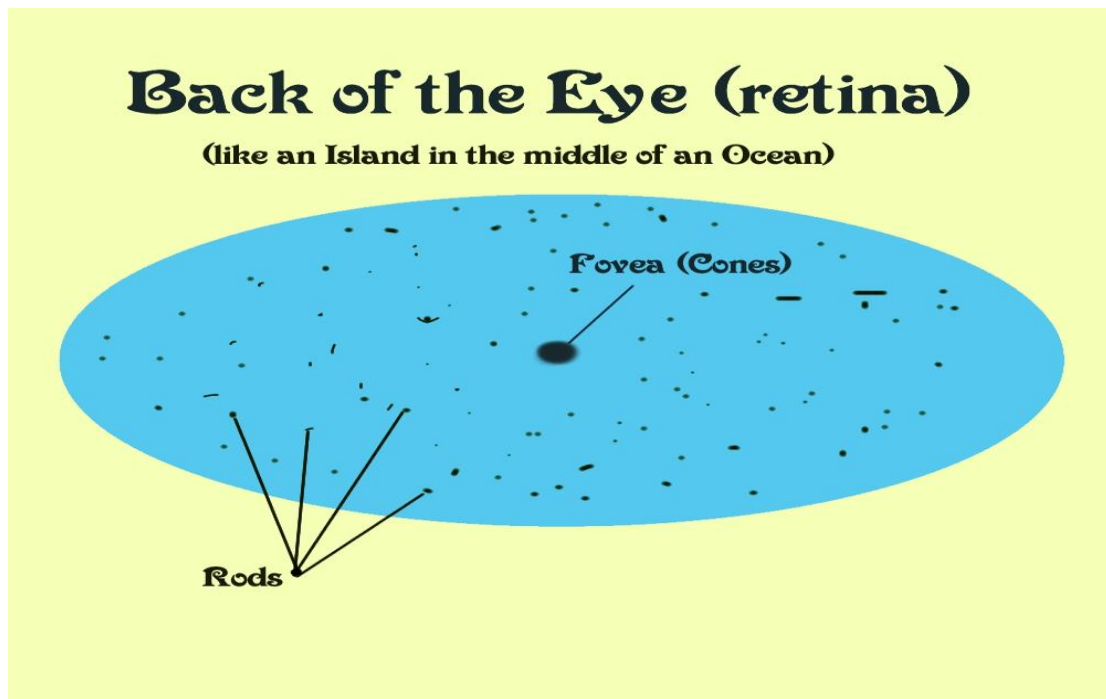
눈 안쪽에선 흥미로운 우연한 일들이 많이 있다. 특히 상징의 의미로써 눈 내면을 볼 때면 더욱 더 그렇다. 놀랍게도 눈 내면의 구조는 많은 철학자나 정신분석학자들이 정신 심리에 대해 전부터 가지고 있던 믿음과 일치한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들은 논리적인 부분과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부분 모두 가지고 있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들은 단지 보기위해 가지고 있는 두개의 시야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고하기 위한 두개의 다른 면도 가지고 있다.

합리적인 사고과정의 예로 과학에서 조리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고도의 정밀함을 보이는 레이저를 사용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물론 논리적 사고 ( 레이저와 같은)는 정신에 대한 아주 좋은 도구이다.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반대로 비논리적인 과정은 확실히 "논리적" 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번뜩이는 상상력은 난데없이 어디선가 툭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 책은 나에게 던져졌다. 바로 이렇게. 마음을 바라보는 이방법은 아주 놀랍다. 융 학파 또한 "무의식"에 둘러싸인 섬과 같

은 우리들의 "이고"(순수 자아)를 오랫동안 생각해왔다. 여러분을 잠시동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던져버리고 내가 위에서 언급한 생각을 쫓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가 찾고있는 상징들이나 우연의 일치는 나에게 있어 걸으로는 끝이 없어 보이지만 이것이 진정한 예술의 본질이라 생각한다. 훌륭한 예술이란 우리가 진정 아름답고 신비로운 사고와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는 황홀하고 그 속에 빠질듯한 느낌의 금빛을 내는 불과 같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흥미로운 생각으로 나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읽도록 초대합니다. 이후에 이 감광 세포, 논리적 사고, 섬 이들과 대조되는 간상체, 비논리적, 인간 마음속에 있는 무의식의 형태 가 내는 여러 상징과 함께 어우러짐을 좀 더 나눌것이다.



Symbols for the eye:

The Cones: (The Island/The Fovea)

Sharp focus is like Logic, conscious awareness, rationality

Science

Narrow focus

The Ego

An Island surrounded by ocean, or a planet in a Universe

Surface Vision, superficiality

Shallow thinking

Narrow-mindedness

Limited logic

Age of Reason/Science

Mundane

Soulless

Neurotic/crazy

Cut off

Unhealthy Reality

Anxiety

Closed mind/heart

Darkness, Chaos

Traffic jam/frustration

Mob mentality

Materialism (only believing what you see)

Sleep walking- unaware

Animal Instincts

Coldness

Disconnected

Frozen

Lost

“Obsessed with the “way things look” rather than deeper reality

Gossiping Society

Tiny hell (if you are stuck)

The Rods: (“Night Vision”/“The Ocean”)

A Deep Water

Unconscious

Feelings



The Soul  
Other thought process (creativity, intuition)  
Depth of thought  
Meaningful experience  
Mystical experience  
Mind of God/Hand of God/Breath of God  
Imagination  
Flowing movement like Dolphins  
Ecstasy  
Heaven  
Healthy  
Relaxed, peaceful, open heart/mind -> meditation  
Full experience  
Light  
Mysterious, beautiful, helpful energies  
Dreams  
High Purpose/Earthly Mission  
Faith  
Divine Inspiration  
Art:  
    Music- universal language  
    Riches of the Soul  
    Stories, Drama, Painting, Dance

Mindless -> Zen Buddhism  
"Connected feeling"

With these ideas in mind, read the story and let's see what you can see:

### "The Ocean of Love"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a very surprising thing happened, indeed. God actually did descend from the Heavens down to Earth. God could see that the world, people and the environment were so messed up that something had to be done. In order to straighten

things out, God decided to turn the enviro-friendly lovers of humanity into dolphins where they lived in God's great Ocean of Love. As for the others, who were destructive to nature and fellow humans, they were forced to live on a tiny island in the centre of the ocean, which in many ways resembled that little dot in the middle of the retina (behind the pupil and lens) called the fovea, which governs "central vision." ( for day vision, high detailed focus).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정말로 천상에 계신 신께서 우리의 땅, 지구로 내려오신것이다.. 신은 자연이 심히 파괴되고 인간은 엉망으로 타락해있는 세계를 보시고 일말의 조치를 취해야함을 아셨다. 눈앞에 직면한 사태해결을 위해, 자연과 더불어 인류를 사랑한 사람들은 돌고래로 만들어 신의세계인 저 위대한 사랑의 바다에 살도록 하였고 반면,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바다 한가운데 위치한 아주 작은 섬에서 살도록 명하셨다, 이 곳은 마치 중앙 시야를 관장하는 황반 , 즉 "포비아"로 부르는 망막 뒤의 작은 점 마냥 조그만 곳이었다.( fovea: 우리 시야가 대낮에 사물을 볼때 아주 섬세하고 미세한 부분까지 볼수있도록 함.)

Life on this tiny island, let's just call it, "Fovea", was unpleasant to say it mildly. For the Foveans of the island were even further "blessed" with a leader, by the name of Hyanus whose Doctorial thesis was on "The Importance of Counting Sand." And, now being on beach, he had some insane idea that it was possible to count all of the grains of sand on the beach....and indeed it was important to him. Don't even try to argue with him on that point!!

이 작은 섬, 이하 그냥 "fovea"라 부르자- 에서의 삶은 애써 좋은말로 열거하려해도 행복과는 거리가 멀었다. 왜냐하면 이섬의 포비언들은 섬의 리더인 하이네스란 자의 저 거짓 '축복'이라는 허울속에 살면서 이 사람이 주창한 "모래세기의 중요성" 이란 이론을 믿고 그를 따르며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제 해변가에 삶의 터전을 마련한 후로 그는 해변가 백사장에 펼쳐진 모래 하나하나를 세는 것이 가능하겠다는 정말로 말도 안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실로, 이처럼 말도 안되고 황당한 생각이 그에겐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였다. 그의 성격을 안다면 이 문제에 대해 시비를 가릴 생각은 꿈도 꾸지 말자.

Life on Fovea, as you might expect, was quite unbearable to imagine. But if you must, try to conjure the image of a mega-enormous traffic jam, the likes of which even New York city hasn't seen. And so it was. Everyday, in the hot and blazing sun, the people drudged out like hopeless herded cattle to the beach where

they kneeled in the horrible, oppressive heat and counted sand with their tweezers and magnifying glasses, while the sweat-life poured out of them in buckets. And the one thing I can say for sure about this place is that it wasn't God's will at all. It was simply the most unnatural place in the world.

포비아에서의 삶은, 누가봐도 알 수 있듯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견디기 힘들었다. 그래도 구지 무언가를 떠올려야 이해를 돕는다면, 메가톤급의 거대한 교통란을 떠올려 보자. 대구 모의 교통란을 겪고 있는 뉴욕에서조차 볼 수 없었던 그보다 더 한 차량행렬을...

섬은 그런 곳이었다. 날마다 지글지글 뜨겁게 타오르는 태양 아래에서, 사람들은 절망에 절은 소떼마냥 해변으로 끌려나와 무릎을 꿇은채로 숨이 막힐정도의 저 엄청난 열기를 견뎌내고있었다. 한손엔 집게와 다른손엔 돋보기를 들고 모래알을 세기시작할때면 땀은 비오듯 흘러내렸다. 이곳에 대해 한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것은, 절대 신의 세계가 아니라는 점이다. 간단히 말해서 세계 어느곳에서도 볼 수 없는 기괴한 곳이었다.

If this isn't tragic enough to break your heart, there were two young children as well, named Peter and Nadia, who by some cosmic mistake, also landed on the island. But when it came time for counting sand every morning, they ducked out and stole away to a relatively, inconspicuous part of the beach, where they sat and dreamed about the great "Ocean of Love," that lay before them. Nadia's voice, like a soothing, gentle breeze, loved to tell Peter all about the beautiful sightings and happenings of the dolphin-people surrounding the island, whether it be their playful games of racing, chasing or jumping, the two of them were especially enchanted with the wonderful mystery of what seemed to be happening below the surface as every now and then a pair of dolphins came flying out of the water like shooting stars. Peter liked to imagine that it must be some kind of true love story occurring in the depths below.

앞서말한 비참하고 열악한 환경 자체만으로 슬픔을 느끼지 못하겠다면, 여기 피터와 나디아라고 하는 어린 소년과 소녀를 만나보자. 이들은 천체 크기에 달하는 큰 실수로 인해 이 섬에 오게 되었다. 매일 아침 모래를 세야할 시간이 오면, 둘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해변가의 한쪽, 인적이 드문곳으로 도망갔다. 그곳에 앉아 항상 그들 앞에 펼쳐진 위대한 사랑의 바다를 꿈꾸었다. 나디아는 부드럽고 잔잔한 산들바람과 같은 소리로 피터에게 자기가 보아왔던 아름다운 풍경과 섬을 둘러싸고 있는 돌고래 인간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말해주기를 좋아했다. 돌고래들이 장난치며 달리기시합을 하는건지, 이쪽저쪽 뛰어오르며 잡기놀이 마냥 펄쩍 뛰며 노는것인지 모르겠지만 둘은 그보다

잔잔한 바다표면 밑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을법한 장엄하고 신비로운 일에 대해 마법에 걸린 듯 빠져들었다. 그러는 사이 이따금씩 한 쌍의 돌고래가 마치 유성처럼 물에서 날아 올랐다. 피터 또한 상상하는것을 즐겼으며 저 깊고 심오한 바다속 아래에 어떤식으로든 진실한 사랑이야기가 있을거라 확신했다.

Actually, Nadia really did have to speak to Peter. Poor Peter really was a special case because, (I forgot to mention), Peter was blind. Sadly, on an earlier day, Peter had spoken out "**against the grain of sand**," the island's law, and received a whip square in the eyes by one of the island's numerous Sand Scientists. Nevertheless, and despite all of these horrible odds, the island, the scientists, Hyanus, his blindness, Peter still had a brilliant capacity to feel. And he could truly feel the beauty of Nadia's words as she painted wondrous pictures for his imagination with each dreamy detail.

나디아는 이제 그렇게 피터의 눈이 되주어야 했다. 가여운 피터는 정말 다른 이들과는 달리 특별한 경우였다. 이 아이가 장님이라는 사실을 깜박 잊고 말을 안했는데, 슬픈일이지만, 어느 이른 아침, 피터는 섬의 법칙인 "against the grain of sand"을 깨고 말을 하는 바람에, 수많은 "모래 과학자" 중 한 명에게 채찍으로 눈을 맞았다.( 이로인해 그의 세상을 보는 시야가 어둠속에 갇혀 버렸다.) 열악한 섬, 삶을 조이는 과학자들과 하이네스의 억지이론, 앞을 못보게 된 지경이었지만 이런 모든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피터는 그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감수성을 한시도 놓지지 않았다. 나디아는 피터가 가진 상상력을 맘껏 펼쳐 볼 수 있도록 경이로운 풍경을 아주 세세하고 꼼꼼하게 알려주었고, 그럴수록 피터는 그녀의 말이 빚어내는 아름다움을 뼈속까지 느낄 수 있었다.

Nadia looked at Peter and sighed. If she could only just take Peter by the hand and walk into the water... Unfortunately that too was "against the grain."

나디아는 피터를 보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피터의 손을 이끌고 바다로 나아갈수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불행히도 그것 역시 모래알 법칙에 반하는것이였다.

The Sand Scientists, as the name suggests, were experts on

counting sand. In the life before, one was a former Accountant and now had really big ideas on the counting of sand. Another, a Psychiatrist, was doing experiments with Blind-Mice running towards a light in a dark maze dug out in the sand. Ironically his empirical study only focused on the X-number of mouse-turds (since they resembled sand) in each trial run. I'm not sure what his conclusions were, but it seemed like the mice instinctively knew something he didn't. Yet another Sand Scientist was an old school Grammar Teacher. And believe me, nobody could line up those tiny grains of sand like this guy. His sense of order was impeccable. Ahh.. the Science of life, the Science of living! The Sand Scientists, with their titles of power, were all of great value to Hyanus. They all unquestionably believed in the Importance of Counting Sand and so the people, with little confidence of their own, believed them as well. It's notable to point out, however, as far as my recollection goes, there wasn't one female Sand-Scientist on the island.

모래 과학자들은, 이름이 말해주듯, 모래알 세기의 전문가들이다. 그들 중 한명은 이전에, 전직 회계사였는데 지금은 모래알 세는 것과 관련해 대단한 계획을 품고 있다. 정신과 의사였던 또 한 사람은 모래를 파내고 만든 어두운 미로 속에서 앞을 못보는 쥐가 빛을 찾아 쫓아가는 실험을 하고 있었다. 엉뚱하지만 그의 경험주의적 실험 연구는 모래알과 닮았다는 이유로 매 실험시 나온 쥐의 배설물에만 초점을 두고있었다.. 그가 보여주고자 하는 결론이 무엇이었던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쥐들은 본능적으로 그가 모르는 어떤 것을 알았음이 틀림 없었다. 또 한 명의 모래 과학자는 역사 깊은 학교의 문법 선생이었다. 내 장담하건데, 그 어느누구도 이 사람만큼 작은 모래알들을 일렬로 나란히 세워놓지는 못했다.

질서체계에 대한 그의 사고엔 흠잡을데가 없었다. 생명을 다루고 삶을 지배하는 과학이여! 모래 과학자들이 지니고 있는 권력이라는 이름과 더불어 이들은 섬의 리더인 하이네스에겐 없어서 안될 존재였다

이들은 한치의 의심도 없이 모래세기의 중요성을 믿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곳 사람들도 아무런 확신없이 그들을 지키고 서있는 과학자들을 굳게 믿고 있었다. 내 확실한 기억으로 그곳에 여자 과학자는 한명도 없었다.

When darkness came at the end of this torturous day, these poor, dehumanized people trudged their way back to their little dwellings, constantly pushing one another forward so as not to collapse right there on the spot. When they finally did get home, they dropped, dead-tired into their beds with exhaustion, and many actually did die

too.

이 고문과 같은 하루의 끝에 어둠이 몰려올때면 , 저 불쌍하고 인간본성을 박탈당한 사람들은 작은 숙소를 향해 터벅터벅 지친 발걸음을 옮기며, 그 자리에서 고꾸라져 쓰러지지 않기 위해 서로를 앞으로 끊임없이 밀어대야 했다. 겨우 집에 도착했을때면 그들은 죽음이 밀려오는듯한 피로감을 안은 채 기진맥진하여 침대에 쓰러졌고, 실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죽기도 했다.

In a brilliant contrast, however, there was Peter and Nadia, the young lovers we met earlier. They actually loved the night time the most of all and felt connected to each other in a most magical way. The two of them even had the ability to meet each other in their dreams, in which they traveled with one another to the most exotic, romantic and wondrous places in world. They just loved flying through the beautiful summer sky. If dreams were only reality.....

하지만 이와 분명히 반대되는 두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피터와 나디아, 우리가 앞에서 만났던 두 젊은 연인이다. 둘은 밤을 가장 사랑했으며 마법에 걸린듯한 어떤 신비한 힘이 서로를 하나로 묶어주었다. 심지어 꿈 속에서도 서로를 만나 가장 이국적이고 로맨틱하며 신기한 곳을 이곳저곳 돌아다녔다. 그저 아름다운 여름 하늘 위로 나는것을 좋아했다. 꿈이 현실로 다가왔으면....

Life passed on in this fashion for quite some time, and then one evening, Nadia's biggest dream of all came to her and when she woke up, the words "I'm right, I'm right!" were still on her sweet lips. (In fact, She was always right. God only knows why she stopped believing in herself. (But I bet it had something to do with society.) She frantically dashed off to see Peter who was already up and about moving around with his intuitive wisdom and just cracking a coconut as she walked in. He was grinning as though he already knew.

삶은 이렇게 묻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나디아는 예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굉장한 꿈을 꾸었다. 깨어나자마자 “내가 맞아, 내가 맞아!”라고 내뱉은 이 몇마디 단어가 계속 입 주위를 맴돌며 아름다운 그녀 입술위로 남아있었다. (사실, 그녀는 항상 옳았다. 신만이 아실것이다. 왜 그녀가 자기 자신의 믿음을 포기했는지.. 그녀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그렇게 했어야 했을것이다.

나디아는 피터를 만나기 위해 밖으로 정신없이 뛰어나갔다. 피터는 일찌감치 잠에서 깨어나

그만이 가지고있는 특유의 감각을 쫓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때마침 코코넛을 자르고 있는데 나디아가 뛰어 들어왔다. 그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싱긋 웃어 보였다.

**"Peter Peter!" cried out Nadia. However she didn't have to finish.**

“피터 피터!” 나디아가 소리쳤다. 그녀가 말을 다 끝마칠 필요는 없었다.

**“I know,” he answered smiling at her in the direction of her radiance. And then she walked over to give Peter the one thing he waited for his whole life. The two embraced and shared, what is now being acknowledged by the Poets of our time as the greatest kiss in modern history. And then, just like a fairytale, Peter’s sight magically returned as both had finally achieved "true love," which actually made God smile from up in heaven. And in an act of blessing, the Almighty sent a white dove, which fluttered down and landed in Peter’s hand. Sight, however, was not the only thing Peter recovered. For at the moment Peter also became 100 times more sensitive, like a new born baby. His heart also grew enormously as did his ability to Imagine, and to think and concentrate clearly and deeply. And it was in this moment that Peter realized that he really did belong out in the Ocean.**

“나도 알아”

태양의 광선이 쏟아지듯 에너지의 기운이 느껴지는 나디아쪽을 바라보며 피터는 살며시 미소를 띄운채 대답했다. 그녀는 피터에게로 다가가 그가 평생 간절히 기다려 온 한 가지 선물을 주었다. (달콤하고 순수한 그것을..)

이 시대의 위대한 시인들은 이제 이 둘의 순수한 짧은 키스가 다른 어떤 연인들이 보여줬던 그것 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다는 것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고 말할것도 없이 이 둘도 느낄수 있었다.

이렇게 이들의 진실한 사랑이 이루어지면서 ,피터의 시력은 동화에서나 나옴직한 마법이 스르르 풀려나가듯 어느새 회복되었고, 이를 위에서 지켜보고 있던 신의 얼굴엔 만족스런 미소가 퍼져나갔다. 신의 축복의 표시로 하얀 비둘기 한마리가 밑으로 내려와 피터 손 바닥에 퍼득이며 앉았다. 피터가 회복했던건 자신의 시력뿐만이 아니었다. 시력이 회복되던 순간 마치 갓 태어난 아이의 예민함 처럼 그의 감각의 정도도 전보다 몇백배 더 늘어났다. 분별력과 사고력 또 상상력 이 모든것이 커져감에 따라 그의 마음도 아주 방대하게 커졌다. 이 시기에 그는 자신이 섬이 아닌 바다에 속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The two of them, in giant leaps and bounds, made their way to the**

beach, as though the “Ocean of Love,” itself were pulling them. And as they ran, they looked up in the sky and saw an enormous white cloud heading their way too, like a tempest was gathering strength. With a windswept tear in their eyes, so full of energy were they, that they nearly knocked over the assembly of sand counters preparing at the beach.

두 사람은 굉장한 속도로, 마치 “사랑의 바다”가 그들을 빨아들이는 것 마냥, 해변가로 나아갔다. 그들 앞으로 아주 거대한 하얀 구름이 내려오고있는것이 보였다. 마치 한무리의 폭풍우가 거세게 몰아쳐 오듯이.

눈물이 바람에 흩날린 채, 에너지로 충만한 들은 모래세기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과 부딪히며 빠른속도로 뛰어나갔고 이로인해 몇몇은 쓰러지기도 했다

And then, Nadia, standing up for the first time in her life, climbed up on a big rock and cried out with her blazing emerald eyes, "People of the island....you don't have to count sand anymore!" Her words, booming out, shattered the oppressive, dead atmosphere. And in a startling reaction, everybody suddenly stopped counting sand and looked up at her. (I'm sure Hyanus was having a breakdown.) This was another great moment history. For this island of Fovea, which appeared to be previously slumbering or unaware, suddenly woke up. And it seemed that their imaginary chains, which weighed them down so horribly, just slipped right off.

나디아는 처음으로 혼자 당당히 일어서서 바위로 올라가 사람들에게 외쳤다. “ 섬 사람들 이어..이제 당신들은 더 이상 모래를 세지 않아도 됩니다.“ 그녀의 에메랄드빛 눈동자에선 이글거리며 타오르는 불길의 강렬함이 세어 나왔다. 그녀의 말은 주변을 울리며 퍼져나가 죽은 듯한 억압으로 포장하고 있는 대기에 균열을 일으켰다.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곳의 모든 사람들은 모래 세는 것을 멈추고 위에 서있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 단언컨대, 하이네스는 무너지고 있었다.)

이는 역사상 또 하나의 위대한 순간이었다. 마치 선 잠을 자고, 어떠한 인식도 하지 못해 보였던 이 섬 전체가 갑작스레 깨어나고 있었고 그들을 무서운 무게로 짓누르던 상상 속의 쇠사슬은 하나둘 스르르 풀려나가는 듯 했다.

**“We were born to be free and united, irregardless of Race, Religion, Language, Status, Occupation or Wealth, just like we were**



as children!” echoed Nadia’s voice. “Our differences are nothing but grains of sand on the lonely island of your own, poor, disconnected mind! Come and join us in God’s Ocean of Love!” And with that, the one boy and the one girl who started it all, and the great majority of the people, made their way out to the Ocean of Love where they instantly transfigured into dolphins. At this time, had anyone looked back, they would have seen the crazy leader, Hyanus, and a number of "sand-scientists" still looking on, speechless, with their impotent whips dangling from their hands. I think they too, however, got the picture before long in spite of the horrible brainwashing they received while growing up!

“여러분 모두는 본디 자유로이 태어나 서로 하나로 연결돼 있습니다.. 인종, 종교, 언어, 신분, 직업의 귀천이 없고 부의 많고 적음에도 관계없이 말입니다. ..!” 나디아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우리가 다른이들과 틀린점은 보잘것 없고 우리의 마음과 단절된 이 외로운 섬에서 모래알을 세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로 와서 우리와 함께 사랑의 바다로 갑시다“ 이 말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시작한 소년과 소녀, 그리고 그 섬의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 사랑의 바다로 나아갔고, 출렁이는 물결위로 발을 던자 마자 그들은 돌고래로 변했다. 이때, 누군가 뒤를 돌아보았더라면, 아마 미치광이 리더 Hyanus와 많은 "모래 과학자들“이 언제나 그랬듯이 그들의 분신인 채찍을 손에 달랑 쥔 채 할말을 잃고 멍하니 사람들을 쳐다 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 생각에 그들 역시, 성장과정에서 받았던 그 무시무시한 세뇌에도 불구하고 머지 않아 이해했던 것 같다.

And as for that great white cloud, the tempest, well that just turned out to be more than a billion doves descending from heaven. And I guess, the people finally realized it was time to start listening and believing once more in the Artists and the Dreamers of society. Also I believe that the hopelessly broken-broken hearted, homeless people too were finally understood and cared for. Lastly, I think all of the “emotional-blindness” in the world also finally disappeared as well!! And so people could at last openly and freely share love as it is in Heaven!

수만마리 아니 그이상의 비둘기들이 만들어 냈던 저 아름답고 굉장한 흰구름 무리는 비둘기 본연의 모습으로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이제 드디어 사람들은 예술가와 이들이 존경을 마다않는 꿈을 가진자들이 하는 말을 더 듣고 믿어야할 때가 왔다는걸 깨달아가고 있었다. 하다못해 절망에 빠져 마음이 심히 다친 오갈데 없는 사람들조차 결국엔 이해하게 되었고 보살핌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감성을 가로막아 앞을 제대로 분간할 수 없도록 만든 방해물도 세상에서 사라진 듯 보였다. 드디어 사람들은

천상에서나 존재하고 있을 그 위대한 사랑에 대해 마음을 열고 자유롭게 함께 할 수 있었다.

Later in history, this time became known as the great Renaissance of the Modern World, a true Age of Aquarius.

And so now my dear friend, brothers and sisters of the world.....

Can you imagine?

그 후로 이 시기는 저 위대한 근대사회의 르네상스로 불리게 되었다. 진정한 문화혁명의 시대

자 이제 이 세상 내 사랑하는 친구 형제들이여.....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